

캄보디아 선교사 훈련센터



건축이 시작됐습니다

이 건물이 우리교회 (GCC)에서 건축을 Commit 한 사랑관이랍니다.

3 건물이 (사랑관, 소망관, 은혜관) 동시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

6월 말 준공예정이며 각 관 마다 강의실 및 숙소가 들어가는데

US 50,000불이 소요됩니다.

Greeting to GCC



18일 밤 11:50
프놈펜 공항에 도착,
새벽 2시에 Bethel
에 도착,
다음날 아침에야
김해준 박사님과
인사를 나누게
됐습니다.
저도 건강합니다

Bethel 초등학생들 머리 감기다



뉴저지 에서 온
베다니 Team 과
더불어 초등학생들
머리 감기 에 참여
하였습니다.
나병 촌 아이들을
데려다 입학시켜
먹이고 입히고
교육시켜 중고등학교
까지- 그리고 신학교
귀한 사역입니다



머리에 이가 많았습니다
이제는 많이 좋아 졌다합니다

피부로 접촉하니
정말 정이 갑니다
마을 학생들이 5일간 학교 기숙사에서
지나다가
주말이면 집으로 갑니다
100% 교비생들입니다
Killing field 가
Healing Field 로
곧 복받고 잘사는 나라로 제 2 한국이
될것입니다



마을 가가 호호 심방을



좋은 경험을 했습니다

베다니 식구들과 함께 2일간 나갔습니다
Soul Winning 이 비교적 쉬운곳, 전혀 거부감이 없는 국민 같아요. 무르 익었습니다. 좀 잘살게 되면 달라지겠지요?. **Timing is just right.**
They are ready to be harvested



마을 사람들이 모여
봉헌 잔치에 참여합니다
They invited themselves.

다목적으로 지어진 **Central Hall** 과
교육관 시설은 입양한 전체 마을의
교육의 장으로 쓰여지기에 충분했습니다
\$120,000 정도 투자 했습니다
곧 그곳에 쌀국수공장을 지어
지역산업을 돕겠다는
포부도 들었습니다





이 과일처럼
구령의 열매가 풍성한
곳입니다.

24일 연길 YUST 에
잘 도착 하였습니다

또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
내주 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

4월 빌수 있기를 바라며
재(再)견(見)!

연변과기대에 교수로 계신 우리교회의 **심정석박사님**께서 연변에 귀임하시기 전에 캄보디아 캄퐁참에 다녀가셔서 간단한 보고서(PPT 파일)를 보내오셔서 소개합니다. -----

지난 해 2009년 11월 초 2주간 캄보디아 캄퐁참지역(프놈펜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)에서 사역하는 **Harvest Mission International**의 **김해준 선교사** 사역지를 저희 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8명의 단기팀이 다녀와서 많은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고 돌아왔었는데 그 열매로 김종현권사(한의사)가 파송을 자원하여 현재 준비 중입니다. (8월 예정)

약 백 십년 전에 학교와 의료선교로 캐나다 와 미국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왔던 것 처럼 캄보디아 캄퐁참에서 김해준선교사의 HMI에서는 600여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소규모 병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. 물론 후원으로 세워진 15개의 지 교회도 되고 있지요.

저희가 가서 짧은 기간에 실제 사역에 참여하여 본 후 느낀 것은 후진 양성을 정말 잘하는 사역지라는 것이었습니다. 성서대학 학생들이 40명 정도 있는데 다들 영어 통역 능력이 탁월합니다. 그래서 그들과 전도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새벽기도에 영어로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다수 있을 정도입니다.

우리 2세들의 선교훈련지로 안전하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선교지라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습니다. 또 여러 분야에 사역자를 추가로 많이 필요로 하는 선교지라는 것이었지요. 신학교수, 의사, 한의사, 한글, 영어, 미술, 체육교사 등 거의 누구든지 뜻과 열정만 있으면 할 일이 널려 있는 사역지였습니다.

폴뎃 공산정권 때 200만이 살해됐는데 그 중 불교승려가 20만이었답니다. 그래서 불교세가 아주 약해졌고 불교가 아직도 국교이지만 불교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과 아주 못 살기 때문에 복음만 잘 전하면 전도대상자 대부분이 예수까지 영접하는 마음이 열린 지역입니다. 지금 한참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도 소득이 올라가서 자본주의 물이 들면 전도가 힘들어져 지금이 정말 호기입니다. **선교부에서 7월과 12월에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동참을 권면합니다.**